

버냉키 이후 세계 경제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유병규

새로운 미연준(FRB) 의장으로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벤 버냉키'가 지명되었다. 미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경제의 진로를 설정하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직책이다. 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 주식 시장, 부동산 가격, 달러화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세계 각 나라의 수출과 통화 가치 그리고 금리 수준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간 상품과 자본 이동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세계가 버냉키의 경제 철학과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단 버냉키 체제가 출범한다 해도 당분간은 그린스펀이 추진하고 있는 물가 상승 억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국제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세계 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까닭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린스펀과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경제 인식을 바탕으로 버냉키 고유의 정책 기조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린스펀이 물가 상승 방지에 더 중점을 두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한다면, 버냉키는 과도한 물가 하락을 우려하는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평가된다. 더욱이 버냉키는 최근 미국의 핵심 물가가 1~2%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제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의장이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면, 2006년 상반기 이후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이 둔화된다면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 고용 사정이 개선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 변화는 버냉키가 '세계 저축 과잉: global savings gluts'이라는 글에서 역설한 것처럼 미국이 세계 경제의 최종 소비자와 자본 차입자 기능을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세계 경제 견인차 역할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대규모 흑자로 요약되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 확대는 기존의 세계 경제 협력 체제를 급속히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버냉키에 의한 성장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먼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흑자국의 통화 가치 절상을 위한 '신프라자 합의'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6% 수준으로 1985년에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등의 통화 가치 절상을 논의했던 플라자 합의 당시인 3%보다 무려 3%포인트 내외나 높은 상태다. 신프라자 논의는 결국 일본이나 유럽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력과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에 대한 강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불균형 심화와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중동 지역의 영향력 강화 여기에 중국을 비롯한 이른바 BRICs의 경제적 위상 강화는 전후 세계 경제를 규율하던 미국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완전 해체마저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는 기존 경제대국에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이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하에서 보다 더 역동적으로 규율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버냉키 시대의 개막은 세계 경제의 다양한 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끊임없이 변모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레스터 서로우가 '세계화 이후 부의 지배'에서 지적했듯이 글로벌 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